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주시 을 국회의원 강민국입니다.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심에 감사를 표하며, 진주시민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총 1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중 6건을 본회의 통과 시켰습니다.

저의 총선 1호 공약이었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일반주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를 공고히 하고자, 국내 최초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서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모두 진주시민들께서 제게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오늘의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막중한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강민국

2025년 8월 11일 (월)

법률소비자연맹 제22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소감

김도읍 의원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강서구 국회의원 김도읍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제22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다시 한번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어려운 시기도 많았지만 늘 우리 주민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으로 격려 받으니 강서구 국회의원으로서나 한 당의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더욱 큰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상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필요한 목소리에 누구보다 먼저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현안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늘 고민하고 행동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의롭고 희망찬 대한민국, 성장하는 부산을 만들어가는 길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도읍 드림

김미애 국회의원 | 법률소비자연맹 -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부산 해운대구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국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고군분투한 시간들에 대한 격려이자, 앞으로 더 무겁게 책임을 다하라는 준엄한 요청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해 온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평가가 국회의 본질적 책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에 입문하며 마음에 새긴 다짐이 있습니다.

가장 낮았던 시절을 기억하며, 땀 흘려 살아가는 이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먼저 찾고, 국민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집중해 왔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책임입니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튼튼한 사회안 전망 속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하나하나 개선해 왔습니다. 특히 위기임산부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온 보호출산제는 시행 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수백 명의 생명을 지켜내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해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권리강화, 자립준비청년 지원, 어르신 삶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다듬어 왔습니다.

법률은 삶의 언어여야 하며, 정책은 현장의 간절함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정치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도전과 실패 끝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정한 사회시스템을 복원하고 개선하는 일, 그것이 청년을 위한 진짜 정치라 믿고 있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공정한 출발선 마련 등 실질적인 체감 정책은 물론,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연금 부담을 덜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도 책임 있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제도 설계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위한 일이며,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닌 책임의 자리입니다.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문장은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자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수상이 그 원칙을 잊지 않고 걸어온 시간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면, 앞으로는 더 단단한 책임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국민과 함께 낮은 곳을 향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김승수(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안녕하십니까? 대구북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승수입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가장 권위 있게 평가하는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정대상’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상을 수여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매년 빠지지 않고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국회 입법활동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저출산 대책 패키지 3법」,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조정수당 인상과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을 담은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3법」 등 지난 1년 동안 49개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13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국정감사, 상임위,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정책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청소년 불법도박 대책 마련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격차 해소, 중소 여행업계 보호 방안 마련, 국외 문화유산 환수 대책 마련,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을 촉구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대변하는 따뜻한 정치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헌정대상은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30

국회의원 김승수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을) 김용만 국회의원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제22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헌정대상은 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횟수와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여되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부로서 책임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하란 격려의 뜻으로 새기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수상은 저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시고, 항상 따뜻한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하남시(을) 주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하남시민 여러분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의정발전과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오랜 시간 의정활동을 분석하고 평가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신 상의 의미를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윤입니다.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결과 ‘헌정대상’으로 선정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5월 30일, 22대 국회의원으로 첫 출근하며 저는 국민께 이렇게 약속 드렸습니다.

“설렘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국회에서의 지난 1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뛰었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을 찾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 모든 과제는 저 혼자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의료·돌봄 현장의 협력이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받는 이 ‘헌정대상’은 제 개인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라, 지난 1년간 함께 땀 흘리고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래왔듯 국민만 바라보고, 약자의 편에 서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윤

국민의힘 분당을 국회의원 김은혜 의원입니다.

의미 있는 상을 수여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언제나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당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생이 어려운 만큼 상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22대 국회 첫 1년동안 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안,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 등을 대표발의 하면서 유권자의 뜻을 의정활동에 담아냈고,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의정활동의 말 한마디, 발 한자국마다 모두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고 느끼면서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진심을 담아 임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 정기 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무거운 민생의 짐을 덜어내고, 더 나은 분당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깊은 영광과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이 상은 단순히 의정활동 성과의 결과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22대 국회 상반기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 노동권 보호에 힘썼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쿠팡 풀필먼트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건, ‘가짜 3.3’ 위장 고용 문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논란 등 주요 노동 현안을 파헤쳤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생물 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 기후대응댐 건설의 절차적 부실과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점검 부실, 멸종위기종 밀수품 거래 모니터링 부실,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장비 관리 소홀 등 환경부 전반의 문제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기간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47건 중 14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29.8%라는 높은 처리율을 기록하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상위 10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은 아마 잘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노력해달라는 의미 같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이 상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더욱 겸허하게, 더욱 치열하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에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신 김포 시민 여러분, 함께 의정활동을 이끌어가는 동료 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늘 따뜻한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번 수상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늘 묵묵히 믿고 응원해주신 부산 연제구 지역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평가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정치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난 1년간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고, 민생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3법」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상습채무자 명단 공개 및 금융정보 열람 근거 마련, 주민등록 마친 즉시 대항력 인정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 4법」을 대표발의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부산의 99세대, 126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어 실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도 밖으로 밀려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에 손을 내밀고자 했습니다.

이밖에도 공항 조류충돌 예방, 도로 안전 점검체계 강화, 지하안전조사 확대를 포함한 「국민안전 3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입법 기반을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정치의 본령인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민생 정치를 실현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에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대국회 1차년도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은 혼자 받을 수 없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뜻을 모아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 왔을 뿐입니다. 본회의·상임위에 빠지지 않고, 시민 눈높이에서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점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회 성적이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출석은 하지만, 재석률이나 표결 참여는 낮고, 법안 통과율도 13% 남짓입니다. 국회가 일하는 곳인지, 말만 하는 곳인지 시민들이 의심하게 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저부터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법안 하나를 발의하더라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과 제도를 바꿔 시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국회의 기본 책무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윤리특위도 구성되지 않았고, 국정감사에 실효성 있는 질의는 부족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게 주어진 권한을 더 성실히 쓰겠습니다. 제도는 멈춰 있어도, 사람은 움직여야 합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 진심만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민 형 배 올림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박균택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기쁩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 유권자들께서 더 좋은 정치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해오신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 및 평가단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국정감사와 청문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국기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특검법 제정과 투쟁에 진력하였습니다.

입법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민생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에는 독재자들의 불법 축재 재산들을 끝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지역 유권자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였습니다. 광주와 광산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군공항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4단계 구간 확대, 광주역~송정역 도심철도 지하화, AI 자율주행차 연구·부품 생산단지 조성 등 지역 주요 현안도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해냈고, 국정과제 반영까지 적극 추진하여 광산 발전에 박차를 가하려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이 뜻깊습니다. 저 개인의 성과를 치하하는 것을 넘어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입니다. 성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주시갑 국회의원 박대출입니다.

법률연맹이 주관하는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진주 시민 여러분과 영광을 함께 하겠습니다.

조사기관인 법률연맹은 감사하게도 지난 2015년부터 10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제 이름을 올려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임위 활동과 재석률, 법안 통과율 등을 종합한 의정활동의 진정성을 평가받아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첫 등원할 때의 초심을 지금도 잃지 않았다고 인정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국민들과 진주 시민들께 봉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미래 세대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문

박 성 훈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박성훈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지키고자 묵묵히 달려온 지난 1년의 시간이 이처럼 큰 격려로 돌아와 감사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수상은 제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언제나 따뜻한 성원과 믿음을 보내주신 북구을 주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22대 국회 1차년도 동안 저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모든 의정활동에서 ‘정쟁보다 민생’이라는 원칙 하나로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내수 침체, 자영업자와 청년층의 채무 문제, 해외 IT기업의 조세 회피 등 민생 현안에 대해 집요하게 묻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입법 활동에서도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법’ 등 실질적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의 본연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위한 실용입법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신념 하나로 흔들림 없이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문〉
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

박홍배
의원실
25.07.29.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먼저 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상은 한 가지 지표가 아닌 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가지의 항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수여하는 상인 만큼, 더욱 큰 보람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은 말 그대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그리고 조기 대통령 선거까지, 격동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어느 때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임기 첫 1년의 의정활동이 다방면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때로는 지치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무너져가는 민생을 바로잡고, 탄압받는 노동자들과 소외되는 약자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떠올리며 의정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주신 이 상은 단순한 수치나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심을 잊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7.2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은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현장을 지켜온 선생님들께서 함께 만들어주신 값진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처음 국회에 들어와 어느덧 1년을 맞이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새깁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의 불법 계엄, 빛의 혁명이 이루어낸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순간 속에서, 국민이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일원으로서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매진해왔습니다.

이번 수상은 그간의 노력을 되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계기입니다.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을 살피고, 더 넓게 듣고, 더 깊이 고민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생과 교육,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치가 멈추지 않도록,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꼼꼼히 챙기며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정대상 수상소감

2025. 7.

안녕하십니까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서범수입니다.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년 연속으로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울주군민 여러분께서 늘 한결같은 믿음과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국민을 위한 봉사이자, 더 나은 나라를 향한 책임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민생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노력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울주군과 울산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땀 흘리며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큰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서범수 드림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법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2025 대한민국 헌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586건의 본회의 법안 표결에 단 한 건도 빠지지 않았다는 이 기록은, 저 개인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지키고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켰다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전쟁터처럼 치열하게 싸우고 토론함과 동시에 표결을 통해 입법 권한을 행사하며 국민의 삶을 보듬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손을 드는 모든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누구의 삶이 달라질까.”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만드는 법률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두꺼운 법전 속의 죽은 조문이 아니라, 골목의 어르신, 병원에 있는 환자, 학대받는 아동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낮게하는, 나아가 민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법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국회에 들어온 뒤부터 제게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이 보내주신 4년, 한 순간도 낭비하지 말자.”

그 원칙을 지켜온 시간의 결과가 오늘의 이 상이라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상의 영광을 부천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법으로 국민을 지키는 가장 성실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올림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입니다.

오랜 전통과 권위를 가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새삼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법·입법감시, 법률·인권교육, 법률운동 35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저의 의정활동에 대해 높게 평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앞서지만, 한편으로는 이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한지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리하여 입법과 감시,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22대 국회의 지난 1년간은 국민의 신뢰와 기대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협치가 사라진 불통, 다수의 힘이 지배하는 국회, 논리와 이성보다는 정략과 감성이 앞서는 행태, 막말·욕설이 일상화된 듯한 국회의 모습이 자리잡은 지난 1년의 국회의 일원이었는데, 이같은 영광스런 상을 수상한 것이 겹연쩍어지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주의 대의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고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를 국회의원 손명수입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의 활동을 평가하는 상인만큼, 이번 수상은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민생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쏟아왔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오직 '민생'을 중심에 두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 07. 29.

국회의원 손명수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유동수입니다.

저를 제22대국회 1차년도‘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법률연맹 총본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대인 상임공동대표·총재님, 홍금애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법률연맹 총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법률연맹 총본부는 세계 최초로 의정평가모델을 구축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왔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등 실질적인 의정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받아 받은 만큼 이번 상은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이번 수상은 제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계양구민과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헌정대상’이라는 뜻깊은 결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감사함과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12.3 내란의 밤을 딛고 국민의 승리로 일궈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생과 개혁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길에 앞장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변화와 혁신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25.
국회의원 유 동 수

「대한민국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 국회의원 유영하입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저에게 큰 영광이자 무거운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이 상은 결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법치와 정의,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데에 대한 국민의 격려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22대 국회 첫 해 동안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회계 분야의 규율 정비,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입법에 주력해 왔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공인회계사법’, ‘표시·광고 공정화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안을 대표·공동발의하며 기업의 책임성과 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피해 구제 권리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과 대리점 사업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거래 공정화 관련 법안 개정에도 집중해 왔습니다.

의정은 정치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 앞에 선 입법자의 양심과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갈등을 중재하고 미래의 기준을 정립하는 자리이며, 그 중심에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 삶의 질을 지키는 입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욱 정직하게 행동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장은 자유롭되 불공정하지 않아야 하며, 경쟁은 치열하되 약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공정과 정의가 작동하는 법치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을 대신해 헌정의 길을 걷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묵묵히 함께해주시는 보좌진, 그리고 오늘 이 상을 통해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깨워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일

국회의원 유영하

법률소비자연맹 '제22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2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두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헌정대상을 수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모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부분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어업 현안과 관련된 사항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농어민이 보다 나은 내일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 한 글자 한 글자에 민생과 지역 발전을 담아내기 위해 현재까지 160건이 넘는 민생법안들을 대표 발의했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지역주민들께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읍·고창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변화의 싹을 틔우는 데 앞장서며, 이번 수상이 정치에 처음 뛰어 들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2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역 발전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 >

이기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국회의원 이기현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저에게 더없이 큰 영광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입니다.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국민과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성과를 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작년 12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국회를 지켜주셨고, 광장의 민주주의를 지켜 주셨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생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일자리 불안, 지역 불균형, 청년 실업 등 국민이 겪고 계신 고통에 대해, 정쟁을 넘어선 실질적인 정치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헌정대상은 ‘앞으로 더 치열하게 임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겠습니다.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응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민생의 회복, 정치의 복원,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며 흔들림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국회의원 이기현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달희입니다.

어느덧 2025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즈음 무더위 만큼이나 답답한 정국상황에서 국민들의 실망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족함을 느끼고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헌정대상」이라는 과분한 상까지 받게 되어 부끄럽기도 하면서 남다른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 의정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을 바로 세우는 것은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주신 의무이자 권한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일하며 필요성을 느꼈던 과제를 차례대로 챙겨나가자는 일념 하에, 22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입법 활동을 충실히 이어왔습니다. 지난 평가 1년 동안 총 2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 중 7건(대안 반영포함)을 본회의 통과 시켰습니다.

특히, 통과된 법안 중 「지방교부세법」·「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법」·「지방재정법」 등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입법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

발의한 법안 중에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 것들도 있지만, 아직 심사 중인 법안이 더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하고 간절한 법일지 모릅니다. 제가 제개정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가와 사회에 꼭 필요한 입법 활동 및 정책 점검에 집중할 것이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수 상 소 감

국회의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먼저,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22대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엄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국민과 국회의 가교역할을 해오신 김대인 총재님을 포함한 모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첫해인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며,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에 매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국민의 삶과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쌀값 안정과 식량주권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해로 인한 피해보전을 강화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그리고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한 「농안법」 등 민생 중심의 핵심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상당수가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의 삶과 직결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제 노력만이 아니라,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과 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전달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헌정대상 수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앞으로도 국회가 신뢰받는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수상이 국민과 민생을 위한 더 깊은 고민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국회의원 이원택

'대한민국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북 충주시 국회의원 이종배입니다.

먼저, 역사와 전통이 깊은 법률소비자연맹의
'대한민국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 애써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대표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평가하는 상이기에
이번 수상이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 국정감사를 비롯한
상임위에서의 활약과 대정부질문, 법안 발의 등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을
공정적으로 평가해주신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을 위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뜻깊은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내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률연맹총본부 제22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부산 부산진구를 출신의 이현승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선정되어 수상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법률연맹총본부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4선의 중진으로 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서 당을 이끌고,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국회 정각회 · 아프리카포럼 회장으로서 여야 소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감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뚝심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법률연맹총본부에서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엄정하게 평가하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한결같은 지역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국회에서 함께 협력해 온 동료 의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라고 주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22대 국회 임기도 부산진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기 의원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먼저, 공정하고 엄정한 기준으로 헌정대상을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헌정대상을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이자, 무엇보다도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을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무언의 당부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국정감사와 본회의, 상임위 활동 등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를 이행함에 있어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끝없이 반성하고 반추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부여한 이 막중하고 무거운 책무를 다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국민이 자랑스러워하고 국민이 감동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남은 임기에도 한결같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보내주신 믿음, 오직 헌신과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희용입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임기 첫 일 년간의 의정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상임위 활동과 입법 활동 등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공신력을 갖춘 국민의 대표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도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은 물론이고 다양한 농어업 단체들과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호 법안이자 '산림을 살리는 법, 국민을 지키는 법'인 <산림재난 방지법안>과 대한민국 미래를 대비하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등 65건의 법안(결의안 포함)을 대표발의해 1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해양 권익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중국의 서해 잠정 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의 좋은 평가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는 국회의원이 되어 남은 3년 동안 국민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성원해 주시는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먼저, 언제나 변함없이 엄정하게 의정활동을 살피고 철저히 평가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정감시단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수상으로, 헌정대상을 여덟 번째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입법·사법 분야 전문가와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구성된 유서 깊은 입법감시 전문 기관인 만큼, 수상할 때마다 그 의미와 보람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은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인 만큼, 이번 수상 역시 더 잘하라는 격려와 책임의 무게로 받아들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이번 평가 기준으로 삼은 다양한 지표들이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임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하나하나에 더욱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부산 중구 영도구 국회의원 조승환입니다.

먼저 오늘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시상하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상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등 국민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시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정치란 아프다는 사람에게 어디가 아픈지 먼저 묻고 손잡아 주는 것이 정치이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왜 눈물을 흘리는지 물어보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늘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값진 상을 주신 것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변화와 성과는 초심을 잃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국회의원으로 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최보윤입니다.

작년 이맘때, 국회 본회의장에 첫발을 디뎠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심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한 1년, 그 시간을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이 상은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뜻이 만든 결과라고 믿습니다.

지난 1년간 장애계와 복지 현장을 찾아뵙고,

그 목소리를 제도에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총 7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50여 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었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자립지원법」, 「무장애 관광 4법」

등은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작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기술이 인간을 향하는 사회'를 목표로 복지의 사각지대와 제도적 칸막이를 없애고, AI·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소외된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헌정대상은 더 성실하고 치열하게 일하라는 국민의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본산, AI·디지털 혁신과 자유무역 도시,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먼저,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라는 말씀과 함께 시상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한 비록 일선에는 나서지 않으나 매일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온 저희 의원실 보좌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및 위원회 산하 원자력소위 관계자분들, 그리고 지난 1년간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의하고 지지해 온 법안들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더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입안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1책무인 국회의원으로서 의정종합대상을 받는 것은 크나큰 영예입니다. 지난 1년 부족한 점도 많았겠지만 마산합포구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더 겸허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1일

국회의원 최형두

「제22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을 받게되어 큰 영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야를 통틀어 4선 이상 다선의원 6명 중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더 무겁게 책임을 짊어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제 정치 인생에서도 가장 뜨겁고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외교통일위원회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시작했고, 계엄사태와 응원봉 혁명, 그리고 탄핵에 이르기까지 헌정사의 중대한 고비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초심을 다시 다졌고, 모든 정치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국민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더욱 굳혔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들을 막힘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국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곁에서 밤낮없이 함께 뛰어준 든든한 보좌진 식구들,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강서구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상이 제게 주는 의미를 잊지 않고, 더욱 단단하고篤心 있는 의정활동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 성산구 주민 여러분.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국회의 본질적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주는 상이라 생각합니다. 입법부는 단지 법을 만드는 기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보호하며, 헌법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 상은 제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지역 주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응원, 함께 일해 온 보좌진과 동료 의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1년간 저는 국정감사, 예산 심사, 입법 활동은 물론, 현장에서 들려오는 민생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 움직였습니다. 미래산업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 삶의 현안에 집중해 왔습니다. 지역에서 주민 여러분을 직접 만나 민원을 듣고, 하나하나 해결책을 찾는 일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도전과 맞서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기후위기, 산업전환의 파고, 세계적 갈등의 확산과 국내 정치의 양극화까지, 국회가 감당해야 할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욱이, 헌정 질서와 권력분립의 원칙마저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입법부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국민 주권과 입헌주의는 수많은 투쟁과 성찰을 거쳐 발전해왔습니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은 군주의 전제에 맞서 의회의 권한과 국민의 자유를 명문화했고,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정부는 국민의 동의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는다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천명하며 현대 헌법정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원칙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원은 단지 법을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라, 이러한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지켜내는 헌정질서의 수호자여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헌법을 지키는 정치인'으로서 정쟁보다 정책, 이념보다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과 더 자주 만나고,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더 치열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지역 현장과 국회를 잇는 징검다리이자, 민주주의의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번 수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가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도록 만드는 일에 저의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법률소비자연맹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동시에 국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8월 1일 국회의원 허성무 드림